

시각이미지 전달을 위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구도 표현방법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최 정 화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유 영 선

· 목 차 ·

- I. 서 론
- II.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개념
- III. 시각예술의 구도 표현방법
- IV.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구도분석
- V.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 중 구도 방법을 연구·분석함으로써 독창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구도방법특징은 '평면적 구도', '반점사적구도'를 활용한 '아방가르드예술 구도'와 '과거 원근법의 현대적 변용 구도', '스냅적 구도의 현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작가의 내면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표현방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표현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I. 서 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모든 시각이미지는 그 대상을 판단 할 수 있는 특질을 시각적으

로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있다. 이러한 시각적 재현의 힘은 일차적으로 대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나오고 이차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특성들이 암시하는 지각에서 나온다.²⁾ 오늘날 이미지의 의미는 시각예술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는 만큼 효과적인 표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각예술로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역시 패션이미지, 패션정보가 포함된 컨셉을 감상자에게 인상적으로 전달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작가는 표현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관찰해야하며, 대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콘셉을 설정해야한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 표현요소는 구도, 드로잉기법, 텍스처, 인체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구도는 그림의 전반적인 배열과 배치에 관련된 요소이다. 작가는 구도표현방법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게도 되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구도표현은 작가의 콘셉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시도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패션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설득력 있는 패션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표현방법 이론을 제공하고자한다. 즉, 시각예술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방법 중 구도의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독창적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현대적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과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해 온 구도 표현방법을 고찰 정리한 후, 이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분석에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작품들은 1980년대 이후 발표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 패션잡지, 패션관련 단행본에서 시각예술의 형식을 갖추고 그려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사용했다.

II.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 개념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함은 신문이나 잡지, 광고의 문장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되는 그림³⁾이라 할 수 있고, 미술의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순수 미술 안에서 전통적인 인체묘사를 드로잉이나 페인팅에 의해 타인을 위해 텍스트와 함께 실려 출판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림, 또는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해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만프레도 마씨로니(Manferedo Massironi)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미지와 그것에 상응하는 언어적

2) R. Arnheim, *Visual Preception*, 김춘일 옮김, 미진사, 1995, p.94

3)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p.329

해석을 통해서 그 본질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의 총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이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단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가가 전달하고자하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기호화하여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적 개념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본질이며, 현대적 개념의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순수회화나 단순한 설명적인 그림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정신, 그리고 작가정신이 반영된 컨셉(concept)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아트(communication art)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일러스트레이션은 판매촉진의 수단이나 현대사회의 정보전달을 위한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휴머니즘적 시각 환경을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아트로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이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형식중의 하나이며, 특징적인 것은 다른 타입의 일러스트레이션과는 주제의 문제에서 구별된다.⁵⁾ 즉,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출판 광고분야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의 현장에서 중요한 시각언어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형식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비해, 보다 대중과 밀접한 패션이라는 매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세 14세기가 될 때까지는 패션을 알리는 주요한 비주얼 소스(visual source)는 -그림, 필사본, 조각, 장례식용 초상, 청동이나 석판조각 등에 있는 비슷비슷한 옷을 입은 남녀의 초상화였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문서로 된 새로운 비주얼 소스, 즉 인쇄된 코스튬 북(costume book)이 나타났다. 1454년 마인즈(Mainz)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동판 발명으로 값싸게 인쇄된 대량의 코스튬 북이 재판과 번역본으로 출판되면서, 유럽의 패션중심도시의 유행과 지나간 시대의 패션그림들이 실려 있는 많은 수의 책들이 파리(Paris), 베니스(Venice), 앤트워프(Antwerp),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등에 배포되었다. 책에 실린 그림들은 패셔너블한 스타일의 옷을 보여주는 초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패션의 기록한 것, 또한 민족복식이나 무대복 같은 동시대 복식의 기록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유행할 패션스타일을 실었다.⁶⁾ 이미 이 시기의 그림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패션정보와 이미지를 담은 시각예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초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동시대의 복식을 증언하고 미래유행을 예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이너의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패션전문인들의 시각언어, 더 나아가 패션상품광고의 이미지전달매체로서 패션산업의 전 분야에서 패션 감각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각예술이라 할 수 있다.

4) 만프레도 마씨로니,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포럼, No. 4, 홍보문화사, p.16

5) Julian Seaman, *Fashion illustration basic techniques*, Basford, p.5

6) Alice Mackrell, *An Illustrated History of Fashion 5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Batsford Costume Book, London, 1997, p.8 요약

III. 시각예술의 구도 표현방법

구도란 그림의 전반적인 배열과 배치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⁷⁾ 그림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⁸⁾이다. 따라서 좋은 컨셉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구도가 잘못되었다면 좋은 그림이 될 수 없다. 어떠한 구도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목적에 따라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과 의향에 달려있다. 그러나 구도를 잡는데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화면공백의 특정한 부분들이 중요한 심리적 작용들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면의 중요치 않은 부분에 시각을 끄는 특징적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관심을 부각시킬 수 있다.

구도라는 말은 화면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스어가 말하는 질서란, 곧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전적 회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질서에 의한 구도는 시대의 미의식에 따라 변화했으며 오늘날의 회화에서 이러한 질서는 무너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예술의 다양한 구도방법을 만들고 있다. 즉, 현대적 회화는 초기단계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있어온 다양한 구도방법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의 다양성은 도리어 우리들의 표현 행위를 풍부하게,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사실상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져있으며 어떤 실험도 가능하므로 가장 바람직한 세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법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다음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구도의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1) 황금분할 구도, 중심구도

황금분할 구도는 고전회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방식으로, 황금분할이란 말은 골든섹션(golden section(英)), 섹티앙 도흐(section d'or (佛)), 골데네 스니트(goldene schnitt(獨))의 번역이다. 서로 다른 자료가 이합집산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비례적인 분할, 즉, 황금비나 황금률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대미술에서의 황금비의 중요성은 비단 그리스에서뿐만 아니라 극동미술에도 나타나고 있다. 고대 중국의 문헌들에는 황금비를 삼재(三才)라고 말하고 있으며 삼재를 통달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장안원(張彦遠)과 같은 화론가(畫論家)도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궁리한 일이라고 말하며, 다빈치의 '회화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심구도는 그림화면중앙에 중요한 요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의 둔탁함이나 정체된 느낌을 주므로 일반적으로 그리 많이 쓰이지 않으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이 구도가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7) *ibid.*, p.144

8) 박용숙, 「회화의 방법과 구도」, 집문당, 1983, p.15

(2) 원근법

원근법은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 및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내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⁹⁾으로 평평한 화면에 공간적인 부피를 표현할 수 있고, 원근법으로 표현된 정경과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점에 관련된 일안시점을 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존하는 작품은 없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두 원근법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원근법이 완성을 본 때는 르네상스에 활약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손에 의해서이다. 그 뒤, 뒤러(Albrecht Dürer)에 의해서 더욱 연구가 깊어졌다.¹⁰⁾ 중세의 원근법의 소점은 종교적인 지고점으로 하여 항상 가장 성스러운 대상을 두었다. 이러한 중세의 신(神)중심적 원근법은 근대에 이르러 소실점에 화가자신을 둔다든가, 서민들을 둠으로써 원근법을 패러디하기도 하였다.

- ① 대기원근법: 대기원근법은 공간감 표현의 한 기법으로 전경의 대상물이 배경보다 크고 세부 묘사가 정확하다. 대상물은 공간 속으로 후퇴하면서 색채, 명암, 텍스처 등이 흐려진다.
- ② 선 원근법: 선 원근법은 소실점에 따라 1점 원근법, 2점 원근법 3점 원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사각형인 화면의 수평선은 소실점이 만나고 수직선은 수평을 유지¹¹⁾하는 일점원근법은 정시도와 사시도로 구분된다. 정시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중심부의 소점이 역동적인 긴장감을 표현하며 동시에 직립형의 조각처럼 어디까지나 바르고 안정감¹²⁾을 주며, 이에 반해, 사시도는 보는 이와 구도상의 소실점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비뚤게 이어짐으로서 안정감은 없으나 정시도의 분위기보다도 훨씬 유동적이며 한층 깊이가 멀어 보이면서 똑같은 평면 위에서 훨씬 무한공간을 신비롭게 느끼게¹³⁾ 만드는 특징이 있다. 직사각형의 모든 평행선들이 소점에서 만나는 2점 원근법은 수평선상에 두 개의 소실점을 갖고, 3점 원근법은 2점 원근법의 2개의 소실점과 제3의 수직적 소실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③ 평행적 원근법: 이 화법은 보는 사람의 시점이 초점에 접하지 않고 화면전체에 머무르는 것으로,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고정된 시점을 사용하지 않아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여러 각도의 상단 시점을 부여함으로써 풍경 속을 거니는 것처럼 그림의 깊이를 안팎으로 관찰하게 한다.¹⁴⁾ 이것은 경과 전경의 구체적인 중지도가 세 단계로 비약되어 있고 마치 세 개의 다른 시점에 의해 잡힌 풍경을 원근법적 질서에다 평행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보이게¹⁵⁾ 하는 기법이다.
- ④ 다중원근법과 다층원근법: 다중원근법은 한 그림 안에서 여러 개의 소실점이 모두가 다 수

9) 월간미술편, op. cit., p.302

10) 박영원, 「시각표현」, 도서출판 국제, 1998, p.78

11) 앤드류 장, op. cit., pp.147-148

12) 박용숙, op. cit., p.120

13) ibid., pp.130-131

14) 앤드류 장, op. cit., pp.147-148

15) ibid., p.97

평선상에 있지 않아 그림을 감상할 때, 눈높이를 바꾸어야 되는 절끄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며, 다층원근법은 하나의 화면 내에 평행하는 몇 개의 기저선들이 있으며, 패널그림이나 틀에 넣어진 그림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감상자로 하여금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혹은 밑에서 위까지 계속해서 읽게 만든다.¹⁶⁾ 고대이집트 벽화나 만화드로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도이다.

- ⑤ 역 원근법 : 좁아지는 평행선들이 만나지 않고 다시 갈라지는 화법으로 비논리적이고 기묘한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중세그림에게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원주민화가들에 의해 자주 사용된다. <그림1>은 배경으로 역원근법을 활용한 현대적 일러스트레이션이다.

(3) 스냅적 구도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사진을 찍듯이 한 순간을 외부로부터 고정시켜 표현되는 것이 스냅적인 구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대적인 회화에서 보여진 구도이다.

즉 화가 자신이 소실점이 되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소점이 화가나 관찰자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은 소점으로 인해 화면에 생긴 깊이가 반대로 화면의 전면 쪽으로 튀어나와 새로운 피라미트의 정상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 정상을 뷰 포인트(view point)라 한다면 결과적으로 스냅적인 구도는 시점의 구도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이와 같은 스냅적인 구도는 결과적으로 그림을 감상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4) 패러디적 구도

패러디는 대체로 한 작가, 특정 양식의 형식적, 문체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키는 두 가지 형태를 따르는데, 종종 주제에 대해 비평적, 풍자적인 것으로 문학과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패러디의 소재가 되는 선행양식은 특정 작가, 특정 사조의 양식이 되는데,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 혹은 양식이라는 점이 여러 사전들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¹⁸⁾

구도에서의 패러디는 근대적 회화에서 시작되어 이를테면 사시도적인 원근법이자 외심적 원근법이 활용되기도 하고 중세에 있어서도 단순선이나 복합선의 스타일이 적용되기도 한다.

(5) 원근법의 변용구도

일반적으로 현대회화에는 원근법이 없다고 일컬어진다. 원근법이 없다는 말은 결코 대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체의 비례적인 혹은 비교적인 시각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고전적인 의미의 사물인식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원근법은 현대문명을 부각하는데 있어서

16) Claudia Betti · Teel Sale, op. cit., pp.179-182 요약

17) 박용숙, op. cit., pp.192-194 요약

18) 고현진 · 김민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Parody)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1995, p.253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¹⁹⁾ <그림2>는 우리가 살고있는 문명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근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오른쪽 맨 앞쪽의 남자인물을 중심으로 U자로 이어지는 원근법의 변용구도를 이루고 있다.

(6) 클로즈업(Close up) 구도

현대적인 회화에서 보여지는 평면구도는 대상세계를 액자 속에 가두는 방법이 아니라, 의식에 투영된 대상의 잔영을 가두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회화는 작가 내면 의식 투영하는 스크린이 된다. 현대의 추상회화는 시점에서 화면의 세계와 자신의 내부의식을 동질화하려고 한다. 근대적 회화가 화면 위에 내부의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면 현대적 회화는 오히려 화면세계를 내부의식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클로즈업구도는 시점과 대상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비합리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며, 동시에 회화를 평면적인 질서로 바꾸어 가는 첫 시도이다.

이러한 특징은 정물화에서 나타난다. 꽃병, 주전자, 물병, 책, 과일, 나이프 등의 물건들은 반드시 그 장소에 그렇게 있어야할 이유가 없는 하나의 즉물적인 사물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화가가 일상생활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 임의로 갖다놓은 물건에 불과하다. 클로즈업 구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물을 일상성에서부터 결별시키는 것이다. 인상파의 초상화들이 인물의 복장을 의식적으로 몽개어 버린다거나 표정을 즉물적으로 변형시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또 구도적으로 인물을 화면에 가득 채운다거나 혹은 인물과 배경의 구별을 거의 없애버리는 색면의 화법이 등장하는 이유도 결국 클로즈업 구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다.²⁰⁾ 클로즈업 구도의 여러 특징은 색채원근법, 시점의 분화(그림3참조)와 역원근법, 복합시점과 동시 원근법, 명암에 의한 역원근법으로 나타난다.

(7) 합체의 시상

현대적 구도의 하나의 양상으로 클로즈업 구도에서 시점과 대상이 합체되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초기 추상화들은 이와 같은 합체의 시점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를테면 화면의 좌우, 상하의 구별이 없으며 합체의 시점이 구도적으로 무방위의 회화를 탄생시켰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앵포르멜(Informel)의 회화에서 여실히 나타난다.²¹⁾ 이 구도는 표현방법에 따라 무방향성, 무시점, 시점 뒤의 시점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된다.

① 무방향성과 무시점: 현대회화에 있어서 무방향성은 회화를 즉물적인 충동이나 몰아적인 황

19) 박용숙, op. cit., p.212

20) ibid., pp.222-224 요약

21) 박용숙, op. cit., pp.262-266 요약

홀경(ecstasy)으로 몰고 간다. 이것은 무시점의 현상에서 비롯된 것²²⁾으로 무시점의 특징은 구도가 자유롭게 보이도록 한 것이며, 앵포르멜이나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과 같은 추상 표현주의적인 회화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즉흥적인 연주성, 우연성, 오브제와 같은 특징들이 그것이다. 미셸 따피에(Michel Tapié)같은 화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거나 뭉개면서 즉흥적인 연주를 하며,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물감통을 들고 다니며 홀리듯 한다.(그림4참조)

- ② 시점 뒤의 시점: 시점의 무방향, 무시점은 결과적으로 시점을 스스로 소거하는 일이 되어 회화적인 방법에 있어서 일체의 대상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난다. 대상을 재현하는 미술은 회화로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추상화가 다시 해프닝(happening), 이벤트(event), 혹은 오브제 따위의 이른바 물체나 행위의 표현양식으로 옮겨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샘’이라고 명명화되면서 변기라는 고유의 성격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물을 이물화 시키는 제2의 조물주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시점이 무한히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역으로 시점이 다시 소점의 상태로 재복귀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²³⁾ 결국 화폭을 가운데 두고 감상자의 시점이 대상의 소점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The Magic of Naive 1992, 1992
p.9



<그림 2>
회화의 방법과 구도, 1983,
p.213



<그림 3>
Cubism and Fashion, 1999,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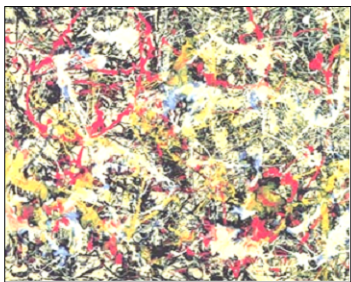
(8) 반접사적(Anti Close up)구도

반접사적구도는 회화가 시점 뒤의 시점으로 변화되면서, 종국에는 회화양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클로즈업구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대상과 시점이 교차된 무분별의 상태에서 다시 시점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록 반접사적인 구도가 시점의 회복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근대적 회화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태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22) ibid., pp.267-269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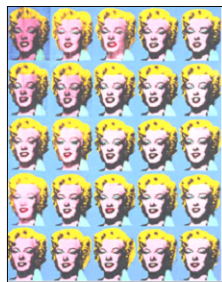
23) ibid., p.282

근대적인 회화의 구도가 사건이나 이야기, 혹은 기념비적인 현장과 같은 거창한 대상을 언제나 약속한 거리에서 붙잡는 것이었다면 반접사적인 의지는 클로즈업 구도에서처럼 그 반대의 입장이며 정지된 사건,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 기념비적인 것이기 보다는 일상적인 현상을 클로즈업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클로즈업 구도는 결코 그대로 정지되지 않는 시계(視界)를 갖고 있다면 반접사적 의지는 클로즈업의 시점을 그대로 고정시키는 일이며, 따라서 클로즈업 시점의 이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닌 단지 클로즈업의 그 순간이 고정된다는 특징이다. 마르셀 뒤샹 이래의 레디메이드(Ready-made), 컨셉츄얼 아트(Conceptual Art), 팝아트<그림5>, 하이퍼리얼리즘(Hyperrealism) <그림6> 따위의 회화가 대체로 이와 같은 반접사적 구도²⁴⁾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림 4>

Art Past/Art Present, 1994, p.544



<그림 5>

The Warhol Look, 1997, p.50



<그림 6>

Art Past/Art Present, 1994, p.568

IV.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구도분석

텍스처, 형태, 볼륨감, 명도, 선, 색채 등의 회화의 기본요소들은 시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으나 이들 요소들을 결합하여 다양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양식, 즉 구도만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구도에는 합체의 시상, 클로즈업 구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뒤이어 원근법과 반접사적 구도가 많이 사용되었다. 원근법의 구도에 있어서는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많이 보이는 다중원근법, 원근법 변용, 역원근법등이 나타났다. 또한 스냅적 구도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도들은 20세기 이후 아방가르드 예술에 주로 나타난 구도들이다.

평면적 구도로 표현되는 합체의 시상, 클로즈업 구도들은 회화를 평면적인 질서로 바꾸려는 것이며, 특히 합체의 시상은 구도적으로 무방위의 회화를 탄생시킴으로서 아방가르드예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화면구성은 반접사적 구도와 함께 패션의 전위성을 표현하고 현대성을 받

24) ibid., pp.287-288

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나타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구도표현의 특징은 아방가르드예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면적 구도의 활용과 과거의 원근법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구도, 스냅적 구도의 현대화로 나타났다.

(1) 아방가르드예술구도의 활용

아방가르드 예술에서의 구도 즉, 클로즈업, 시상의 합체, 반접사적 구도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7>은 이태리 속옷 컬렉션인 ‘피티 린제리(Pitti Lingerie)’의 포스터인데 짧은 트렁크로 보이는 옷들을 평면적 구도로 패턴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즉, 시상의 합체구도로 앵포르멜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무방향, 무시점의 구도로 표현된 것이다. 앵포르멜회화는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비정형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림 8>은 아방가르드예술의 반접사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윤곽선으로 그려진 그림을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이중적으로 오버랩시킴으로써 마치 초점이 맞지 않은 그림으로 보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반접사적 구도의 의지로 초점의 어긋남은 그림이 작가의 시점에 포착된 것이 아닌 고정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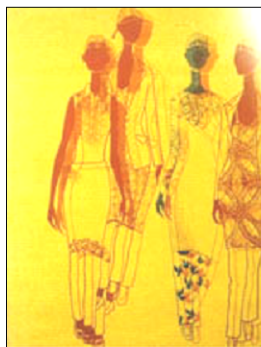
<그림 9>는 현대인의 도시생활을 그린 것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나누어진 바탕화면 위에 원근법구도의 도시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붉은색과 검은색의 바탕 위에 표현된 그림은 원근법과 상관없는 반접사적 의지의 고정된 화면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반접사적 구도는 시각예술에서처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아방가르드한 표현구도로써 뿐만 아니라 예술을 대하는 작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7>

Pitti Lingerie Poster, 1991



<그림 8>

Visionaire's Fashion 2000, 1995



<그림 9>

The Lodon book, 1997

(2) 원근법의 현대적 변용

현대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르네상스시대의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원근법의 체제를 깨면서 구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10>은 전통적인 선 원근법 즉, 1점 원근법의 구도로 중세의 전통적인 원근법처럼 소점에는 신성한 상징물, 사원이 놓여있다. 중세의 원근법은 가장 신성한 상징물이나 숭배받는 존재를 소점에 둠으로써 엄숙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림의 경우 만화적인 인체표현과 기법으로 전통원근법에서 표현되는 엄숙함을 즐거움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림11>은 현대회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원근법의 변용구도인데, 타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단은 다시 되돌아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긴장감을 준다.

<그림12>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놓여진 대상을 그린 다중원근법 구도의 그림이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체는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은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다시점의 원근법은 인간의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적인 구도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전통원근법의 현대적 변용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현대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약화되기 쉬운 예술적인 화면의 깊이를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10>
Style Dictionary, 1983



<그림 11>
Fashion Illustration Today, 1985



<그림 12>
La Mode En Peinture, 1986

(3) 스냅적 구도의 현대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스냅적 구도는 과거의 스냅적 구도가 기념적인 것에 사용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일상적인 장면을 스케치할 때 사용되었다. 이는 현대 시각예술에서의 스냅적 구도와도 같다. 특히 패션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생활 속에 있는 패션을 스냅적 구도로 표현할 때 감상자가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작품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림13><그림14>는 일상적인 장면을 스냅적 구도로 스케치한 그림이다. 과거의 스냅적구도가 기념비적인 사건을 담기위해 사용된 구도라면 오늘날 스냅적 구도는 패션에 관련된 일상의 모습

을 하나의 사건으로써 장면(still)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 Vogue No.775, 1997



<그림 14> The Fashion Book, 1998

V. 결 론

현대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나타내고자한 표현효과는 예술성과 독자성이다. 아방가르드예술에서 사용되는 구도의 방법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화면에 예술성과 독자성을 부여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확인한 것으로 구도방법의 특징은 20세기 아방가르드예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면적 구도와 반접사적구도 활용과 과거의 원근법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구도, 스냅적 구도의 현대화로 나타났다. 이것들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반접사적 구도인데 이는 구도방법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작가의 내면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표현방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의 표현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현대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을 리드하는 전위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항상 아방가르드예술과의 접목을 시도하여야 한다. 즉, 현대예술에서의 아방가르드구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인간내면의 세계까지도 반영된 구도로 이루어지므로, 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터는 아방가르드에서의 새로운 표현구도나 방법들을 연구해야한다. 또한 동시에 지나친 예술적 구도의 강조로 전달하고자하는 패션메시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접수: 2004년 2월 16일)

【참 고 문 헌】

- R. Arnheim, Visual Preception, 김춘일 옮김, 미진사, 1995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만프레도 마씨로니,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포럼, No. 4, 홍보문화사
박용숙, 「회화의 방법과 구도」, 집문당, 1983
박영원, 「시각표현」, 도서출판 국제, 1998
앤드류 장,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3, p.80
Claudia Betti · Teel Sale, 「현대드로잉기법」, 하영식 옮김, 미진사, 1994, p.134
고현진 · 김민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Parody)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1995, p.253
Julian Seaman, Fashion illustration basic techniques, Basford Ltd, 1995
Alice Mackrell, An Illustrated History of Fashion 5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Batsford Costume Book, London, 1997
Ruben Toledo, Style Dictionary, Abbeville press , 1996
Nicholas Drake, Fashion Illustration today Revised edition, Thames and Hudson, 1997
Richard Martin, Cubism and Fashion, Harry N.Abraams, Inc., New York, 1999
Andrew Tucker, The London Fashion Book, Rizzoli, New York, 1998
La Mode en Peinture, les collections été '86
Vogue Italia, 1999, 3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omposition for visual image communication in Fashion Illustrati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oi, Jung Hw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hee University **Yoo, Young Sun**

This research has been focused for the expression of composition in Fashion Illustration to set up the theoretical basis for fashion illustration .

The characteristics of composition method are mainly shown as the application of plane composition which was used in avant-garde arts, the altered composition which has been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in past to the modern composition, and modernization of snap composition. These factors are used for the expression of modern image in fashion illustration, and furthermore, they showed anti-Close up in composition which is the reflection of the way of the spirit of the artist as well as one of the way of composition. Therefore, the future fashion illustration should be focused to the way of image expression which shows the human spirit and emotion as well as the visual expression.

Key words : Fashion illustration, Expression of composition, Visual communication